

■ 2023년도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주관기관 공모 지원심의 총평

- 사업유형 및 심의분과 : 2023년도 문화다양성확산사업(구.무지개다리사업)
- 회의일시 : 2023년 3월 29일(수) 09:00~18:00
- 회의장소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

문화다양성확산사업(구. 무지개다리사업)은 유네스코 「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」 이행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고유문화, 언어문화, 지역문화, 세대문화, 소수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금번 사업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, 지자체 출자·출연 문화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유관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하였다.

또한 이번 공모부터는 기관의 역량과 지역 현황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규모에 따라 준비/심화/확산의 단계별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. 이에 신청기관의 자격요건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선정된 주관기관에는 단계별 지원 내용에 따른 보조금과 교육 등을 2023-2024년까지 2년간 연속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본 심의는 1차 서류심의, 2차 인터뷰심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. 심의기준은 지원단계에 따라 준비단계는 사업이해도(50%)와 기관의 수행역량(50%), 심화·확산단계는 지역특화성(20%), 사업계획의 적합성(30%), 기관의 수행역량(30%),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(20%)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.

이번 공모에는 총 30개 기관이 신청하였다. 이 중 1개 기관은 지원자격 부적합으로 행정결격 처리되어 이를 제외한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, 최종적으로 22개 기관이 선정되었다.

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을 다문화 사업, 소수자 지원사업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, 이번 공모 지원신청서(사업계획서)에서 나타난 각 기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화된 사업화를 위한 고심한 흔적을 통해 <문화다양성확산사업>에 대한 이해 수준과 사업화 역량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특히, 확산단계에 선정된 기관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특화된 사업과 체계적인 운영전략을 잘 보여주었다.

심화·확산단계의 경우, 본 사업에 다년간 참여했던 기관이 다수였다. 이에 과거 운영실적과 기관의 역량에 대한 분석 없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한 경우,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,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. 본 단계에 선정된 기관들은 다년간의 사업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타 기관 혹은 지역사회 간 선도적인 모델로서 상호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심의위원 공통의 의견이 있었다.

올해 신설된 연구조사를 지원하는 준비단계의 경우,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본 사업의 지원의도,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기관과 계획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. 준비단계에서 지원하는 연구조사(실태조사)는 각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분석 틀 설계가 핵심이므로,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조사 계획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.

문화다양성확산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 추진 이후, 올해로 11년차를 맞이하였다. 그동안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문화다양성 자원이 발굴 및 사업화되었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상호 소통에도 기여해왔다. 앞으로도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.

2023년도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주관기관 공모 지원심의위원 일동